

러일전쟁과 한국인 포로 문제

조 재 곤*

1. 문제제기
2. 포로가 되는 경위
3. 현지 생활과 귀환 과정
4. 전시 국제법에서 소외된 한국인 포로들 - 맺음말을 대신해서 -

1. 문제제기

1904~5년의 러일전쟁은 제물포 등 한국의 중부, 평안도·함경도 지역, 울릉도와 거제도 등 동남해, 부산, 마산-서울의 일본군 이동선, 중국 동북지역, 일본 북서부,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등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일본의 국제전이자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별다른 관련없이 인력과 물자의 동원 대상이 되었고, 고통과 희생도 증폭되었다.¹⁾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선도센터 연구교수

1)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전쟁 기간 만주, 한국, 동해 등지의 전투에서 러시아, 일본 양국 간에 수많은 포로가 발생되었다.²⁾ 포로 중 일부는 상대방 국가로 이송되었다.³⁾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도 군인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일본군인과 유사한 경로를 통해 오랜 기간 연행되었고, 이후 러시아 영토에 장기 수감되어 크게 고통을 받은 바 있다. 강제연행과 장기 수감의 경우는 1904년 3월 김하룡, 4월 하기우라마루(萩浦丸) 탑승 한국인 선원들, 4~5월 사이 김시함 등 9명, 1905년 2월 길주군수 이익호, 4월 종성군수 주철준 등의 다섯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군에 체포되어 핀란드만 인근 메드베지 지역까지 이송되었다.

일본은 다수의 러시아군 포로를 에히메현(愛媛縣) 마쓰야마(松山)를 비롯한 각지에 분산 수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904년 3월 18일 마쓰야마에 처음으로 포로수용소를 개설하였고, 이후 마루가메(丸龜), 히메지(姫路), 후쿠치야마(福知山), 나고야(名古屋), 시즈오카(静岡) 등 29개소를 설치하였다.⁴⁾ 그런데 포로수용소 개설 이전인

조재곤,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 2013; 조재곤, 「전쟁과 변경: 러일전쟁과 함경도의 현실」, 『동북아역사논총』 41, 2013; 조재곤, 「러일전쟁과 평안도의 사회경제상」, 『동북아역사논총』 49, 2015.

- 2) 포로취급을 둘러싼 국제법규와 러일 간 논의, 일본 측의 포로대우와 관련해서는 才神時雄, 『松山捕虜收容所: 捕虜と日本人』, 中央公論社, 1969; 才神時雄, 『ロシア捕虜の記録』, 新時代社, 1973; 吹浦忠正, 『捕虜の文明史』, 新潮選書, 1990; 松山大學 編, 『マツヤマの記憶: 日露戦争100年とロシア兵捕虜』, 成文社, 2004가 참고된다. 일본군 포로에 대해서는 才神時雄, 『メドヴェージ村の日本人墓標』, 中央公論社, 1983; 廣瀬健夫, 「日露戦争における日本兵捕虜についての一考察」, 『人文科學論集』 22, 信州大學 人文學部, 1988; 藻利佳彦, 「ノヴゴロド州メドヴェージ村日本人捕虜收容所」, 『マツヤマの記憶: 日露戦争100年とロシア兵捕虜』, 成文社, 2004; 吹浦忠正, 『捕虜たちの日露戦争』, 日本放送出版協會, 2005 중 제1부 '日露戦争と日本人捕虜' 등의 연구가 있다.
- 3) 전쟁 기간 일본 측에 잡힌 러시아군 포로는 총 7만 9,367명이었고 러시아 측에 잡힌 일본 측 포로는 군인, 군속, 야전철도대원, 선원 등을 포함한 총 2,000명으로 러시아군 포로가 거의 40배 정도 많았다. 吹浦忠正, 『捕虜たちの日露戦争』, 2005, 16·19쪽.
- 4) 才神時雄, 『松山捕虜收容所: 捕虜と日本人』, 中央公論社, 1969; 松山大學 編, 『マツヤマの記憶: 日露戦争100年とロシア兵捕虜』, 成文社, 2004.

초기 전투에서 일본해군의 러시아 선박 나포과정에서 승선한 한국 인들도 체포된 바 있다.

〈표 1〉 일본 해군에 의한 한국인 체포와 처리 현황(1904년 2월~3월)⁵⁾

선명	용도/상태	나포일	나포지역	한인 수	석방일	석방지
무크던	상선	2월 6일	부산항	3명	2월 10일(1)	나가사키
					3월 10일(2)	나가사키
미하일	원양어선	2월 10일	한국연안 5해리	1명	3월 10일	나가사키
니콜라이	기선	2월 10일	한국연안 4해리	7명	3월 10일	나가사키
알렉산드르	원양어선	2월 10일	쓰시마섬	1명	3월 10일	나가사키
나아-쵸다	帆船	2월 17일	하코다테항	1명	* 즉시 방면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한국인은 총 13명이 체포되었다. 이 중 하코다테(函館)에서 즉시 석방된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져 각기 1달 정도 구금상태에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포로로 처리되지는 않은 듯하다.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극히 일부의 군인과 군속 등 일본측 포로와 함께 한국인 포로를 러시아 본토로 집중시켜 노보고로드 인근 메드베지로 이송하는 방침을 택하였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포로 대우와 귀환과정에서 일본 군인들과는 다른 차원의 민족적 차별을 받았고, 그 결과 군수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 1명의 포로사망자 처리 경위와 일부 포로의 경우는 체포와 귀환과정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이미 1899년 양국이 가맹한 「헤이그(Hague) 육전조약(陸戰條約)」의 「규칙」에 따라 국제조약을 준수하여 상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포로대우와 송환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 과정과 이후 국제질서에서 한국인 포로들에게는

5) 陸軍省 編, 『明治三十七,八年戰役俘虜取扱顛末』, 有斐閣, 1907, 137~138쪽에 의해 작성함.

그런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육로로 무려 1만 km 이상 되는 메드베지까지 끌려간 한국인들은 어떤 과정에서 포로가 되어 생활하였고 어떻게 귀환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일본 양국 정부, 그리고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2. 포로가 되는 경위

러일전쟁 기간 일본군 포로의 수송 루트를 보면, 만주방면은 봉천(심양)에서 하얼빈으로 기차 수송 → 하얼빈에서 동청철도(東淸鐵道)와 시베리아 철도로 30여 일간에 걸쳐 러시아 포로수용소 메드베지에 도착하였다. 연해주 및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의 포로도 철도로 하얼빈으로 이송되었다. 포로는 체포된 후 가까운 역까지는 도보로, 다시 철도로 하얼빈으로 이송되었다. 그 다음 2차 집결지는 톱스크였다. 통상 경유지는 동청철도 → 러·청 국경 만주리아에서 시베리아 열차 환승 → 치타 → 바이칼호 도선(渡船) → 이르쿠츠크 → 크라스노야르스크 → 톱스크 → 옴스크 → 첼랴빈스크 → 우파 → 사마라 → 펜자 → 모스크바 → 메드베지 순이었다.

메드베지(медведь)는 북위 58도 러시아 북서부 노보고로드 서남 약 50km에 위치한 지역이자 1825년 알렉산드르 1세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군사기지로 2천명 이상의 농민을 동원하여 건물들을 축조하였다. 이후 러시아 황제 부대의 시설로 이용하다가 크림전쟁(1853~1856) 시기 터키인 포로를 수용하였고, 러일전쟁 시 러시아 제199연대 본부 구내에 일본군 포로수용소로 재구성되었다.⁶⁾

6) 廣瀬健夫, 「日露戦争における日本兵捕虜についての一考察」; 藻利佳彦, 「ノヴゴロド州メドヴェージ村日本人捕虜收容所」, 『マツヤマの記憶: 日露戦争100年とロ

전쟁 중 러시아는 포로정보국을 설치하고 1904년 6월 4일 「포로취급가규칙」을 공포하였다. 러시아는 처음 일본 포로를 톰스크에 수용한 후 다시 모스크바 부근에 있는 몇 개의 촌락으로 옮겨 분산 수용하였다가 이후 메드베지로 옮겼다. 이곳에 수용된 포로는 총 2,000명 중 1,777명이었다. 나머지 223명은 멀리 이송할 수 없는 부상병으로 하얼빈과 만주에서 치료를 받으며 포로생활을 보내다가 1905년 말부터 다음 해 3월에 걸쳐 순차 귀국하였다.⁷⁾

〈표 2〉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측으로부터 인계받은 포로내역

구분	계급 / 직업	인수	소계
육군	장교	33	1,574
	하사졸	1,541	
해군	장교	4	21
	하사졸	17	
육군군속	鐵道隊	12	95
	통역	2	
	築城團	2	
	和泉丸 선원	71	
	佐渡丸 선원	8	
해군군속	우편선원	2	142
	海軍軍夫	69	
	金州丸 선원	71	
상선원	萩浦丸 선원	25	159
	博通丸 선원	13	
	經一丸 선원	18	
	北征丸 선원	24	
	興榮丸 선원	28	
	太神丸 선원	8	
	占領丸 선원	7	
	八重丸 선원	8	
	八幡丸 선원	1	
	아란톤호 선원	1	
商船 和泉丸 선원	26		
기타	사진사	2	9
	상인	3	
	石工	1	
	부인	1	
	朝鮮 郡守	2	
합계			2,000

*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ニヨル兩國俘虜員數及階級等調査一件』(明治 38年 6月 20日~明治 39年 4月 23日)에 의거 작성

シア兵捕虜』, 158, 161쪽.

7) 吹浦忠正, 앞의 책, 21쪽.

총 2천명의 포로내역은 앞의 <표 2>과 같다. 이들 포로들은 1905년 12월 15일, 12월 21일, 1906년 1월 2일, 1월 22일, 2월 4일, 3월 22일 총 6차례에 걸쳐 러시아령과 만주로부터 인도되었다. 그런데 당시 외무성에서 작성한 위의 표 ‘비고’에 따르면 하기우라마루(萩浦丸) 상선원 포로에 한인 11명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후술할 ‘조선 군수’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하기우라마루 승선인원 수는 다른 자료(23명/27명)와 일치하지 않는다.

전쟁 기간 한국인이 포로가 되는 경위는 다음의 # 사례 1, 2, 4, 5처럼 러시아 한국분견대와 일본 북한지대(北韓支隊 : 함경도제대)의 육상전과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군 제2함대의 해상전이 지속되던 함경도 지역에서 체포되는 특징이 있다.⁸⁾ # 사례 3의 경우는 체포된 장소와 동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

사례 1 : 김하룡(金河龍)의 경우

김하룡의 구두진술서(口供書)를 토대로 런던주재 일본 총영사가 작성하고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⁹⁾ 김하룡 25세, 함경북도 함흥군 평리 거주 김병선(金炳善)의 3남이다. 특징은 신장은 크고 코는 낮고 구레나룻을 기르는 용모로 일견 일본인과 흡사하다.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러시아어도 다소 이해한다. 그는 약 9년 전(1897~8년경) 고향을 떠나 일본의 포경선(捕鯨船)·객선(客船) 등의 승무원으로 일본연안 여러 항구 간을 왕래하던 중 전쟁이 발발

8) 조재곤, 「러일전쟁 시기 함경도 전투의 전개과정」, 『軍史』 86, 2103, 46~47, 53~58쪽.

9) 外務省 外交史料館, 『韓國人俘虜送還ニ關スル件』(런던 총영사 坂田重次郎 → 외무대신 林董, 1906년 12월 13일).

되자 군용수송선 와이즈미마루(和泉丸) 승무원 일본인 이시아마(石山富吉)의 주선으로 이 배에 승선했다. 그는 1904년 2월 성진항에 도착한 후 두만강 가에서 일본의 군사정찰을 보조하던 중 3월 29일 밤 경흥에서 이시아마와 같이 러시아군에 포로가 되어 우수리스크 인근 ‘미하일로프카’ 감옥에 갇혔다. 그 후 6월 15일 동해에서 포로가 된 와이즈미마루 선원들과 시차를 달리하여 그는 9월 30일 미하일로프카로부터 시베리아 각지를 경유해 메드베지로 호송 수감되었다. 또 다른 프랑스어와 영어로 기술된 러시아 측의 포로 기록 자료에 의하면 ‘김하룡(Kim Cha Lun)’은 ‘포경선원(Whale man)’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와이즈마마루 포로 명단에 김하룡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6월 탑승자들이 포로가 되기 이전인 3월 밀정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이었다. 와이즈미마루는 6월 15일 동해에서 러시아군함 ‘구름보이’호에 의해 격침된 후 육군 2명, 인부 20명은 이 배에 수용되어 각기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와 무기는 모두 몰수되었다. 이들은 6월 19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한 후 22일 러시아군의 호위 하에 화물열차로 이곳을 출발하였다. 우수리스크(니콜리스크)를 거쳐 23일 송화강, 24일 목단강을 통과하여 25일 하얼빈에 도착하였다. 6월 27일 하얼빈을 출발하여 7월 5일 바이칼 호 역에 도착하여 기선으로 갈아탄 후 이르쿠츠크에서 다시 기차로 호송되어 12일 톰스크 시 외곽에 있는 수용소에 일시 수용된 후 메드베지로 옮겨졌다.¹⁰⁾

사례 2 : 하기우라마루(萩浦丸) 한국인 선원들

1904년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돌연 원산 앞바다에

10) 防衛省 防衛研究所, 『明治 39年 俘虜 1(3)』, 명치 38년 12월 12일~39년 4월 9일.

나타나 전진항에 있던 일본운송업자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 소유로 함경도와 부산 사이를 운항하던 상선 하기우라마루(萩浦丸) 선원을 강제 상륙시킨 후 수뢰를 발사하여 격침시킨 일이 있었다. 탑승자 전원은 포로가 되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TSR; Trans Siberian Railroad)로 우랄산맥을 넘고 볼가강을 지나 메드베지 지역에 수감되었다. 후일의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하기우라마루 승선 인원 중 선장 시노자키 켄시로(篠崎兼四郎) 등 러시아로 송환된 23명이었다. 이들 중 한국인은 사무원 한득청(韓得淸), 수부(水夫) 김치련(金致連)·김봉우(金鳳祐), 취부(炊夫) 야마구치 나가요시(山口長吉:개명자), 판방(板傍) 고영식(高永植), 선복(船僕) 한용운(韓龍雲)·옥암보(玉岩甫)·안지○(安志○)·원서방(元書房)¹¹⁾과 명단에서 누락된 함흥상인 김자완(金子完)¹²⁾을 합하면 10명으로 전체 포로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같은 외무성 자료의 또 다른 기록에는, “일본상선 추포환을 임검하여 그 선원인 일본인 12인, 한국인 15인[27인]을 수용하고 보로도니코프 대위가 배를 폭침했다”고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앞의 <표 2>의 비고란에는 ‘한인 11명’으로 되어 있다.

사례 3 : 김시함 등 9명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문서자료(「日露戰役ノ際露國ニ於テ俘虜情報局設置并ニ俘虜關係雜纂」 제2권, 명치 37년 7월)를 보면, 일본 측에서 확인한 프랑스로 된 포로 명단 중, 한국인은 총 9명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浦塩艦隊元山來襲金州丸, 五洋丸, 萩浦丸遭難一件』, 「(極秘)日露戰役ニ關スル個人損害要償事件調査報告」(1908년 2월 1일).

12) 『各司謄錄』 近代篇, 報告書 제8호(함남관찰사 신기선 → 의정부참정 박제순, 1906년 6월 3일).

〈표 3〉 러시아로 압송된 한국인 포로 명단

이름	직업	이송처	체포일	원거주지(고향)
김시함(Kim-si-hami)	통역	'Gunjulin'	5월 17일	서울
반학한(Pan-hagi-han)	투항자(항복)	송화강	4월 18일	함경도 길주
한은수(Han Ensu)	제빵업자	송화강	4월 18일	서울
심형기(Chim Hinegi)	노무자	송화강	4월 18일	함경도 청진
조명보(Cho Menbo)	노무자	송화강	4월 18일	함경도 청진
김성감(Kim Sungami)	통역	'Imampo'	4월 15일	길림 영고탑
서건무(So Genmu)	제빵업자	하얼빈	5월 4일	송도, 서울
조경숙(Cho ken Siuki)	상인	하얼빈	5월 4일	함경도 '부호한부'
안덕호(An-Toko)	지도(도면)제작자	하얼빈	5월 4일	전라도

이들 중 김시함은 이름 옆에 천주교인, 반학한은 직업란에 투항자(항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누구에게 체포되고 이송되었는지, 포로기간과 현실적 처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반학한, 한은수, 심형기, 조명보가 1904년 4월 18일에, 서건무, 조경숙, 안덕호가 5월 4일 같은 날 체포되어 각기 같은 지역으로 이송된 사실만 알 수 있다.

사례 4 : 길주군수 이익호(李翼鎬)

1903년 6월 군수에 임명된 이익호는 1905년 2월 러시아군에게 체포되었다. 함경북도 길주는 러일 양국군이 오고가는 지점으로 점령군이 수시로 바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황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던 길주군수를 러시아군이 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1904년 5월 이익호는 외부대신에게 4월 5일 명천군에 들어온 러시아군 300명이 11일에 길주군에 들어와 연로의 전선이 모두 폐절되었다는 우편 보고를 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함경남북도 선유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1905년 1월 함경남북도 봉세감리로 역둔토(驛屯土)도조(賭租)와 식리전(殖利錢) 수납 등의 역할도 병행하였다.¹³⁾

13) 『威鏡南北道來去案』, 1904년 5월 25일; 『起案』, 1904년 6월 22일; 『訓令照會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군 당국의 징세협조 요청에 미온적이었을 개연성도 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가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郎)에 보낸 1905년 1월 4일자 공문에 따르면 1904년 10월 당시 러시아군 점령 함북지역 내의 수세권은 모두 러시아 관헌의 손에 있다는 내용의 풍설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는 그 증거로 길주군수 이익호가 자신의 가족에게 보낸 서신 중에 러시아 관헌이 발행한 통고서 별지 사본 2통을 입수하였다는 것이다.

한력(韓曆) 갑진(甲辰) 9월 21일[양력 1904년 10월 29일]부로 대아(大俄) 마대(馬隊) 참장(參將) ‘포일레프’ 명의로 길주군수 이익호 편에 보낸다. 귀군(貴郡) 각종 공세(公稅) 수납의 건은 반드시 귀군 주재 대아장관(大俄將官)에게 품(稟)한 후 수납함에 있어 혹은 계속 대아국(大俄國 : 러시아) 관할 아래 수납할 것임을 알리고자 모든 면과 촌에 고시하여 인민이 알도록 하고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책임이 돌아가는바 삼가 수행할 것.

러시아력 10월 20일(한력 9월 25일; 양력 11월 2일) 러시아 기병대 참장 포일레프 명의로 길주군수 측에 보내는 훈령.

경성(鏡城)으로부터 잡혀온 2명은 ‘아무르’ 총독의 훈령이 있어 착수(捉囚)되었다. 총독훈령 내에 귀국 북도(北道) 각종 공세(公稅) 수납의 절차는 반드시 우리나라 장관(將官)에 품하여 수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다시 고시하니 공전 수납은 하나하나 경성 주재 러시아 대관(隊官)에게 알려 보고하여 생경(生梗)함이 없도록 할 것.¹⁴⁾

그러나 함북관찰사는 그해(1905년) 6월까지도 이익호의 행방을 알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주사 김주병(金滄炳)을 봉세사검관으로 정해 내려 보냈다.¹⁵⁾ 10월 길주향장(吉州鄉長) 이병섭(李炳燮)도 내부(內部) 훈령으로 확인해본 결과 러시아군 30여 명이 갑자기

存案』, 1905년 1월 10일.

14) 外務省 陸海軍省文書, MT(明治·大正文書), 「北韓方面ニ於ケル露兵ノ行動情報」(大本營, 在京城 落合 참모장 → 참모차장, 1905년 1월 4일 號外 電報).

15) 『訓令照會存案』, 1905년 6월 17일.

아문에 돌입하여 이익호를 경성군으로 끌고 가 하루 숙박한 후 급하게 두만강을 건넜고, 그를 따르던 품팔이 김한권(金漢權)이 22일에 돌아왔지만 어디로 향한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다시 러시아군에게 탐문한, 즉 ‘양지역구식포(洋地力口息浦 : 노보키예프스크)’를 거쳐 현재는 ‘역구식포(力口息浦 : 니콜리스크)’에 있다고 한다.¹⁶⁾

그는 연해주 크라스키노와 우수리스크에 일시 억류 된 후 피득보(彼得堡 : 페테르부르크) 인근 웅동(熊洞 : 정확한 지명은 메드베지 [медведь]로 ‘곰’이라는 뜻)에 호송되었다. 이후 1908년 6월 4일 이익호는 내부대신에게 러시아군에게 잡혀가서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사연 즉, ‘로국포로기(露國捕虜記)’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그는 1904년 12월 일본 북진군대가 함흥을 거쳐 성진항에 들어오자 백미(白米)와 우저(牛豬)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군 상황을 정찰하여 군사령관 이케다(池田大介)에게 통보하고, 겸임 선유사 훈령으로 각 군수에게 도로교량 수축과 전신주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있었다. 그가 체포된 데에는 선유사로서의 역할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일의정서」 이후 선유사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경성주둔 러시아 기병 300명이 1905년 2월에 길주군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어 총칼로 난자하여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어 혼절하였다 한다. 이어 경성부(鏡城府)로 옮겨 3일 동안 위병소에 감금되었다가 다시 연추(煙秋 : 노보키예프스크[Новокиевск]). 현 크라스키노)의 러시아 군영과 소왕령(蘇王嶺 : 니콜스크 우수리스크[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으로 이송된 후 일본요리점 빈집에 5개월 갇혀 있었다.

그는 음력 3월 3일(양력 4월 7일) 우수리스크 경시총감 겸 병참감에게 ‘일본과 한국은 한 하늘을 함께할 수 없는 원수(不共戴天之讐)’로

16) 『皇城新聞』, 1905년 11월 3일.

17) 『統監府文書』, 「內部大臣에게 提出한 李翼鎬의 露國捕虜記」(原 吉州郡守 現 鏡城郡守 李翼鎬 → 內部大臣 任善準, 隆熙 2年 6月 4日).

“한국 임진년 왜란(倭亂)에 군수의 선조가 왜인에게 죽어서 대대로 원수로 아는 대 무슨 마음으로 후대하였겠습니까? 만일 후대할 마음이 있으면 나라의 역적이요, 선조에 불효가 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익호는 러시아군의 요구에 의해 귀리 700석과 마량(馬糧) 1000다발을 제공하였고, 일본군의 미곡 50석 요구를 거절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첩자로 몰리게 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 주장하였다.¹⁸⁾ 그러나 석방요구는 일축되었고 그해 6월 철로로 주야 90여 일 걸려 메드베지로 호송되어 이곳에서 4개월 동안 일본군 포로와 동거했다.

사례 5 : 종성군수 주철준(朱哲濬)

1905년 4월 9일 함경도 종성에 돌입한 러시아군은 종성군수 주철준을 체포하여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보냈다는 짤막한 신문 기사가 있다.¹⁹⁾ 주철준은 연해주 우수리스크 감옥에 갇혔고 석방을 위한 2차례 청원서를 러시아 당국에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종성군수 4년, 겸임 회령군수 2년을 하고 있었으며, 러시아군이 관내에 들어오자 군량과 마초(馬草)를 실심(實心)으로 제공하였고, 러시아 군에게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옥중에 가두고 재판도 결정도 없었다는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였다. 또한 그의 하인 오상근과 최장손이 그를 따라 오다가 북간도 왕청현 인근인 하마탕(蛤蟆塘)에서 러시아군에게 체포된 후 같이 수감되었고 주철준은 우수리스크 지방관에게 이들의 석방을 청원했다.

18) 「1905년 4월 16일 연해주 수비대장(начальник обороны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이 연해주 군사총독에게 보내는 함경북도 길주군수 이익호의 청원서 첨부 보고서」 #첨부: 「함경북도 길주군수 이익호가 니콜스코 우수리스크(Никольско-Уссурийский)시 경시총감에게 보내는 청원서」, РГИАДВ(러시아국립극동역사문서보관소), ф.1, оп.2, д.764, л.15.

19) 『皇城新聞』, 1905년 5월 8일.

감사 앞에 청원서를 올리노니 밝혀 살피소서. 저는 종성군수한 지 4년이오, 회령군수를 겸임한 지 2년 이온데, 고을 백성을 지휘하여 아라사[러시아] 진중(陣中) 군량마초(軍糧馬草)와 결과 차세를 갖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어 행했습니다. 제가 아라사 진중에 공로가 있사옵고 죄는 없사옵고, 남의 나라 국록을 먹는 관원을 잡아들여 주인 보수도 아니 하여 주시고 옥중에다가두어 재판도 없사옵고 청원서를 올렸더니 판결도 없사오니 무슨 사고인지 알지 못하여 다시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 아라사에 명하시어 속히 재판하셔서 무죄한 사람을 석방하여 주시옵소서.²⁰⁾

자료가 충분치 않아 오상근 등이 풀려났는지, 이후의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철준 또한 시차를 달리하여 시베리아 열차로 메드베지 이송 후 다른 포로들과 같이 수감된 것은 자료상 분명하다.

군수 재임 당시 이익호는 “다스리는 방법이 관맹(寬猛)을 고루 갖추고 적폐(積弊)의 형국에 고막(痼瘼)이 가히 떨어졌음”, 주철준은 “청렴하여 백성이 칭송하고 의지하여 함께 선정(善政)을 칭송하고 비요(匪擾)를 방어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성명(聲名)이 널리 퍼지며 이 같은 능재(能才)로 가히 거국(巨局) 시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04년 10월 10일 의정부 회의를 통해 황제가 치적을 칭송한 바 있었다.²¹⁾ 그러나 체포된 한참 후인 1905년 10월에서야 두 사람은 공식 면관되었다.²²⁾ 해임사유는 “처음부터 부(내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유없이 관직을 비우는 것은 사체(事體)를 헤아려 보면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²³⁾

20) 『대한국 함경북도 종성군수 겸임 회령군수 주철준이 대아라사 소항령(蘇項領) 감사에게』. РГИАДВ, ф.1, оп.2, д.764, л.70.

21) 『官報(大韓帝國)』, 1904년 10월 10일.

22) 『皇城新聞』, 1905년 10월 11일.

23) 『皇城新聞』, 1905년 10월 13일.

3. 현지 생활과 귀환 과정

메드베지 수용소 포로들은 각기 계급과 직업에 따라 제1상급자수용소, 제2상급자수용소, 하급자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제1상급자수용소는 장교의 대우를 받는 80여 명을, 제2상급자수용소는 20여 명을, 하급자수용소는 하사졸 이하 선원과 인부 등을 수용하였다. 상급자수용소는 각 방에 1명에서 5~6명씩을, 하급자수용소는 크고 작은 방의 사정에 따라 10명 내지 60명씩 수용하였다.²⁴⁾ 이들에게는 매일 1인당 반백(半白) 빵(처음은 흑빵) 3근, 각설탕 3개 반, 야채스프, 호밀 밥, 소고기 100그램과 차(茶)가 지급되었다.²⁵⁾

포로들은 「포츠머스 강화조약」(1905년 9월 5일 조인, 10월 15일 비준) 비준 직후인 1905년 10월 중순부터 조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귀환준비를 시작하여 러시아 군악대와 메드베지 시민의 전송을 받으며 ‘우-도르고시’ 역에서 열차편으로 12월 12일부터 출발하였다.²⁶⁾ 12월 15일 1,777명(장교 92명, 하사졸과 선원 등 1,684명, 여성 1명)이 독일국경 비르바렌 역에서 베를린 주재 일본 무관 오이 기쿠타로(大井菊太郎) 대좌에게 인도되었다.²⁷⁾ 귀로는 시베리아가 아닌 대서양과 인도양, 태평양을 경유하는 해로가 선택되었다. 러시아군 포로는 1905년 말부터 1906년까지 송환이 실시되었다.²⁸⁾ 당시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나머지 223명은 대부분 이송이

24) 銜翠居士(村上正路), 『配所迺月』(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 1907), 저자 무라카미 마사미치(1852~1917)는 후비역 제7사단 보병 제28연대장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1905년 3월 10일 봉천대회전에서 부상 후 러시아군에 체포된 ‘상급포로’였다. 그는 러시아 당국의 특별허가를 받아 메드베지 수용소의 각종 건물, 포로생활 등에 관한 사진과 지도를 작성하였다.

25) 藻利佳彦, 앞의 논문, 106쪽.

26) 廣瀬健夫, 앞의 논문, 155쪽.

27) 吹浦忠正, 앞의 책, 118~119쪽.

28) 伊藤信哉, 「日露戦争における捕虜経費の支弁について」, 『日露戦争当時のミクロレベルの日露關係』, 松山大學 法學部 學術研究會, 2003.

곤란한 부상포로로 이들은 러시아 측에 의해 치료를 받은 후 190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익호와 주철준을 제하면 한국인 포로 대다수는 각기 다른 험난한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익호와 주철준

이익호는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인 1905년 12월 일본군 포로들과 함께 석방되어 철로로 독일 항구에 도착한 후 베를린을 거쳐 함부르크에서 영일(英日) 양국 회사의 운선(輪船)으로 10여 국을 경유해 다음해인 1906년 2월 4일 고베를 거쳐 서울에 비로소 도착하게 된다.²⁹⁾ 귀환 후 그는 “작년 2월 초 4일에 본인이 러시아인에게 잡혀 1년을 험한 세상[苦海]에 수십만 리를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지금에 고국으로 살아 돌아 왔다”면서 억울함을 내부(內部)에 호소했고,³⁰⁾ 그 결과 면징계되었다. 그러나 이익호는 1906년 2월 15일에는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의 조희로 러시아군에게 인장을 빼앗긴 일을 추궁받게 된다. 이에 내부에서 관인(官印) 등 공용물을 잃어버린 것은 마땅히 논경(論警)해야 하나 그때의 사정을 참작하여 면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조희를 한 바 있다.³¹⁾ 또한 과거 1904년 8월부터 함경남북도 봉세 감리를 겸임하던 중 상납전 5,359량 3전을 범용(犯用)한 혐의로 납부를 독촉받게 되자 한 푼도 횡령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경리원에 호소하였다.³²⁾ 이익호는 1906년 9월 경성군수에 임명된 후

29) 『統監府文書』, 「內部大臣에게 提出한 李翼鎬의 露國捕虜記」(原 吉州郡守 現 鏡城郡守 李翼鎬→內部大臣 任善準, 隆熙 2年 6月 4日); “前 吉州郡守 李翼鎬氏가 日俄戰爭 中 俄國軍隊에 被捉하여 再昨年 日本 俘虜와 兵庫縣으로 前往하였다가 그 후 本國으로 到來하였는데...” 『皇城新聞』, 1908년 6월 25일.

30)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7일.

31) 『皇城新聞』, 1906년 2월 16일; 2월 21일.

1908년에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다.³³⁾

한편 이익호는 러시아군에게 체포될 당시 몰수당한 군수의 인장과 재산³⁴⁾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러시아 측도 이를 수궁하였다. 그 결과 물품가액으로 우편환 수수료 40코페이카[1코페이카는 1/100 루블]를 공제한 19루블 20코페이카에 상당하는 일본화폐 121원 63전으로 바꾸어 마츠다(松田)은행을 경유해서 노브키예프스키 국경사무관 밀류노프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영사 노무라(野村基信)를 통해 1909년 2월에 전달되었다.³⁵⁾ 이는 환(換)과 증서로 일본 외무성 회계과장에게 예치되었다가 통감부 총무관방장에게 송부되었다.³⁶⁾

주철준도 이익호와 함께 일본 포로 탐재선에 동승하여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도중에 영국 수송선 ‘벤쿠버’호로 갈아타고 1906년 1월 말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2월 9일 효고현(兵庫縣) 고베(神戸)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육군부로귀환자취급규칙」에 의한 심문을 받고 청취서(聽取書)를 작성한 후 11일 오후 8시 시모노세키발 기선 이치자키마루(壹崎丸)로 부산항을 향했다.³⁷⁾ 결국 체포

32) 『威境南北道各郡訴狀』 7冊(經理院卿→厘正所, 光武 10년 10월 23일), 奎, 19162.

33) 『大韓帝國官員履歷書』, 1책 21권 참조.

34) 함복선유사 인장 1개, 함경남북 봉세감리 인장 각 1개, 길주군수 인장 1개, 길주부윤 인장 1개, 봉세계자장정(捧稅啓字章程) 2권, 봉세전(捧稅錢) 책자 4권, 성명도장 1개, 금전 245원 등이다. 『統監府文書』, 「內部大臣에게 提出한 李翼鎬의 露國捕虜記」(原 吉州郡守 現 鏡城郡守 李翼鎬→內部大臣 任善準, 隆熙 2年 6月 4日).

35) 『統監府文書』 「露日戰爭 중 러시아 군대에 체포된 前 한국 吉州郡守 李翼鎬의 소유물건 환부에 관한 件」(浦塩 영사 野村基信→외무대신 小村壽太郎, 1909년 2월 18일).

36) 『統監府文書』 「전 한국 길주군수 이익호의 소유물건 환부 방법에 관한 건」(외무차관→통감부 총무관방장, 1909년 2월 26일).

37)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山口縣 지사→內務次官, 1906년 1월 31일; 내무차관→외무차관, 1906년 2월 19일).

된 후 무려 10개월 만에 탁지부에서 고베-부산간 여비 41원 30전을 지불한 후 귀국할 수 있었다.³⁸⁾ 일본 측이 선지불한 이익호와 김하룡의 여비는 1906년 3월 15일 의정부 회의를 거쳐 대한제국 황제의 재가를 받아 탁지부에서 지불했다.³⁹⁾ 이들 두 명의 군수만이 일본군 포로와 더불어 정상 루트를 통해 귀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기우라마루 한국인 선원들

일본군 포로들은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후인 1905년 12월부터 귀국을 시작했고 잔류한 부상자들도 이듬해 3월 이전 돌아오게 되었지만 하기우라마루 한국인 선원들은 한참 후인 1906년 6월 이후에서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초기에 귀국하지 못한 이유는 교전 상대자인 일본군이 아닌 민간인, 그것도 한국인이라는 이유가 큰 것이었고 귀국비용 마련도 수월치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러시아주재 일본공사관에 여비주선을 탄원하여 3천여원을 지불받게 되었고, 통감부와 협의 후 송환되었다.⁴⁰⁾

후일 김자완(金子完)의 소장(訴狀)에 의하면 그는 4월 25일 북어 554통(同: 시가 3천元)을 하기우라마루(萩浦丸)에 탑재하고 부산항으로 가다가 포로가 된 후 수년간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다가 강화조약 체결 한참 후인 1906년에서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한다. 그는 “외병(外兵)의 싸움에 한민(韓民)의 피해가 억울하지 않을 수

38) 『東萊港案』(의정부 참정대신 朴齊純→동래감리 李懋榮, 1906년 4월 2일), 奎, 17867.

39) 『起案』, 1906년 3월 15일. 奎, 17746.

40) “한인 포로 중 11명은 목하 窮境에 있어 구조의 방법을 當館에 歎願. 여비 약 3천 지출”.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本野 공사→외무대신, 1906년 10월 20일). 이 기록에 의하면 ‘한인 포로 중 11명’으로 되어 있다.

없다”고 호소하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⁴¹⁾ 귀국 직후 김자완은 이 소장에 이어 7월과 11월, 총 3차례에 걸친 탄원서를 함남 관찰사와 의정부에 제출하였다.

7월의 소장에 따르면 그는 함흥항 감리서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이미 잘 알고 있고 일아전쟁(日俄戰爭) 중에 본국인 손해는 다만 추포환(菽浦丸) 만에 있지 않으니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자재(自在)하니 이를 기준으로 하여 빙고(憑考)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⁴²⁾라는 상투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이후 11월의 의정부 연명 청원서에서 그는 서상우(徐相瑀), 이영준(李永俊), 김성서(金聖瑞) 등과 함께 “오래도록 잡혀 노국(露國)으로 가서 감옥에 갇혀 고생하여 잔루(殘縷)가 끊어지지 않았으나 세월이 덧없이 빠르게 2, 3년 흘러 금년 2월에 이르러 비로소 석방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명태 554통과 서상우, 이영준, 김성서의 명태 622통, 총 1,176통을 하기우라마루에 탑재하였다는 선주 호리 리키타로(堀力太郎)의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리는 함구로 일관하였고, 함흥부에서도 별다른 처분이 없었다 한다. 이후 호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의 선척가(船隻價)를 상환 후에 우리들의 물건 값을 또한 내어 줄 것이다”면서 상환에 소극적이었기에, 일본 공관에 조회하여 만국공법에 따라 계산하여 돌려주게 하라고 청원하였다. 김자완 등은 당시 러시아 해군에 격침된 또 다른 일본인 소유선박 고요마루(五洋丸) 선적 한국 상인들의 명태 문제까지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에서는 ‘통감부를 경유해서 회답을 받을 일’이라는 간단한 처분만 내렸고,⁴³⁾ 이후 더 이상의 진행상황은 알 수 없다.

41) 『各司謄錄』 近代篇, 『報告書』 제8호(함남관찰사 신기선 → 의정부참정 박제순, 1906년 6월 3일).

42) 『外部訴狀』 제9책, 『咸鏡道咸興郡居金子完請願書』(김자완 → 의정부 참정대신. 광무 10년 7월).

김하룡

김하룡은 1905년 11월 경 전신 수종증(水腫症)에 걸려 귀국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모스크바 소재 병원으로 옮겨져 잠시 요양 후 현지 미국 영사에게 송환 수속을 호소했지만 거절당했고, 러시아 관헌에게 다시 호소하여 겨우 포로증명서를 얻었다. 이후 그는 종이꽃을 만들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마모(馬毛)를 구입하여 시계 덮개를 만들고 혹은 조선공이 되어 겨우 호구(糊口)를 마련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그는 ‘펜자’ ‘사마라’ ‘다리우르스카야’ ‘메드베지’ 등을 돌아다니다가 1906년 9월 하순 페테르부르크 경찰서에 가서 일본과 중국영사관, 구한국 공사관원 등을 통해 비자신청을 부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10월 하순 러시아 경찰당국의 허가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기선 ‘라르가’ 호에 탑승하여 영국 ‘뉴-케슬’로 보내졌다. 11월 3일 하선한 김하룡은 이 지역의 ‘프리스틀, 테르레-츠’ 5호로 ‘케서린 맥버슨’에 체재한 해군 기수 야마시다(山下茂太郎)를 만나 그의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같은 달 10일 여비를 주선받아 기선으로 12일 런던 도착 후 일본 총영사관에 귀국과 보호의 방법을 청원했다.

그는 니혼유센카이샤(日本郵船會社) 지점과 교섭하여 런던-요코하마 간 하등(下等) 승객으로 선임(船賃) 16파운드를 선지불하고 11월 15일 출발했다. 입체금 합계 9,075파운드는 일본외무성을 경유해서 통감부와 협의 후 한국정부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후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다.⁴⁴⁾ 김하룡은 다시 1907년 2월 6일 니혼유센카이샤 기선 야마구치마루(山口丸)로 상하이(上海)로부터 고베(神戸)를 경유해서 가나가와(神奈川)에 입항한 후 여점

43) 『外部訴狀』 제9책, 「威鏡南北道居商民金子完等請願書」(김자완 등 15명 → 의 정부 참정대신, 광무 10년 11월 30일).

44) 앞의 각주 9)와 같음.

니시무라헤야(西村屋)에 숙박할 때 사복순사 1명이 부속되었다.⁴⁵⁾ 그는 2월 17일 오후 4시 일본우선회사 기선 우에가와마루(上川丸)편으로 귀국 길에 올랐다.⁴⁶⁾ 일본 엔화로 환산한 제 비용 청구액 합계 39원 50전은 그해 6월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를 통해 탁지부에서 일본정부에 지불하면서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되었다.⁴⁷⁾

김시함 등 9명

이름과 직업(상황), 이송처, 체포일, 원 거주지만 기재된 이들의 수감 상태, 행로와 귀환 과정 등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당시 일본인의 메드베지 포로생활 체험기에 따르면 포로였던 한국인 통역을 매개로 하여 러시아 적십자로부터 권련초, 권련연, 여름 저고리와 속옷, 바지, 손수건, 이 닦는 가루, 수첩, 이쑤시개 등 일용품과 의복 및 러일 회화 서적, 러시아 포로취급 규칙서 등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⁴⁸⁾ 한국인 포로 중 통역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5월 17일 체포된 김시함과 김성감 두 명뿐이므로 특별히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5) 外務省 外交史料館, 『俘虜韓國人送還ノ件』(神奈川縣 지사→외무대신, 1907년 2월 7일).

46) 防衛省 防衛研究所, 『陸軍省 密大日記』, 『韓國人金河龍諸費用支出ニ關スル件』(1907년 1월 10일); 外務省 外交史料館, 『俘虜韓國人送還ノ件』(神奈川縣 지사→외무대신, 1907년 2월 18일).

47) 『各部通牒』, 제260호, 奎. 17824(탁지부대신 민영기→의정부참정대신 박제순, 1907년 3월 9일); 『各部通牒』, 제260호, 奎. 17824(탁지부대신 고영희→의정부참정대신 이완용, 1907년 6월 4일).

48) 吹浦忠正, 앞의 책, 65쪽.

4. 전시 국제법에서 소외된 한국인 포로들 - 맺음말을 대신해서 -

러일전쟁 기간 일본 측도 러시아 측도 인도주의와 국제법에 따라 상호간 포로를 대우하였다.⁴⁹⁾ 러시아와 일본이 공히 러일전쟁 시 포로대우의 근거로 삼은 것은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회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된 「헤이그 육전조약」이었다. 일본과 러시아는 1899년 국제적으로 발효된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⁵⁰⁾과 그 부속서인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쟁 포로를 처리하였다. 이 법규는 1900년 비준되었고, 제2장 14조에 의거하여 포로정보국을 설치하게 된다.⁵¹⁾ 포로정보국에서는 포로의 성명, 계급, 사상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다. 「헤이그 육전조약」 가맹국은 총 32개 국으로 대한제국도 뒤늦게 1903년에 가맹하였다.

그런데 한국인 포로 처리를 당시의 국제법에 근거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인 외에는 외국인 비전투원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규칙」 제1관 ‘교전자’ 제1장 ‘교전자의 자격’ 제3조 “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이를 편성할 수 있으며, 적에 체포된 경우는 양자가 동등하게 포로의 취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관 제2장의 ‘포로’ 제19조 내용 중 “포로의 사망증명에 관한 서류 및 매장에

49) 이는 러시아와 일본 모두 구미제국의 외채획득 필요성이 절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廣瀬健夫, 앞의 논문, 146쪽.

50) 정식명칭은 영어로는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이고, 프랑스어는 ‘Convention concernant les lois et coutumes de la guerre sur terre’이다.

51)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於テ俘虜情報局設置并ニ俘虜關係雜纂」 제2권, 명치 37년 7월.

관한 것도 또한 동일한 규칙을 준수한다. 그 계급 및 신분에 상당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인 포로들의 귀환은 대한제국 정부에서 통감부로의 정치 지배체제가 변환하는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의 의지는 전혀 반영될 수 없었고 전쟁 당사자인 일본과 러시아 당국의 의지만 작용되었다. 일본군의 전면 귀환 시 한국인 포로들은 민족적 차별을 받아 버림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말기 대한제국 행정부의 무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 동원된 후 체포된 이들 중 김하룡은 가장 먼저 체포되어 가장 늦게 귀환하였고, 하기우라마루 한인선원은 귀국여비 마련도 지난하였다. 국경의 행정 관직자인 이익호와 주철준만 그나마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당시 일본 기록에는 일본군 대좌의 ‘동정’으로 ‘배를 빌려’ 겨우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⁵²⁾ 통감부는 이들의 귀환비용 모두를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부상포로의 경우를 보면, 일본 포로 중 질병에 걸린 자 또는 간호 치료를 요하는 자 223명은 1905년 10월 이전부터 러시아정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거쳐 송환시키고 있었다. 10월 1일 독일 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勝之助)가 외무대신 가츠라(桂太郎)에게 보낸 전보에 의하면 러시아정부는 일본정부가 편의한 지점에 이송하고자 한다면 러시아와 독일 간 국경에서 인수받게 할 것이고, 기선을 빌려 러시아의 1개 항구에 기항할 수 있다고 공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한다.⁵³⁾

그런데 김하룡 안전과 관련하여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

52) “벤쿠버 호에 동승하여 고베에 도착한 한국인 2명. 聽取書. 러시아 將官에게 억류되어 本邦(일본) 포로 村上 大佐의 同情을 얻어 用船하여 귀작.”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내무차관→외무차관, 1906년 2월 19일).

53)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ニ依ル兩國俘虜引渡一件』(在獨 井上全權公使→桂 外務大臣, 明治 38년 10월 1일).

(寺內正毅)는 외무대신 하야시 타다스(林董)에 조회하여 어용선 와 이즈미마루(和泉丸)는 1904년 2월 4일 육군에 빌려주어 동년 4월 중순 경 제1군 수송 때문에 인천 및 진남포 방면에, 이후 6월 격침 때까지 성진방면에서 사용한 일이 있었지만 이미 2월 경 일본군은 성진부근을 점령하였고 김하룡은 일본 군용선을 타고 군무(軍務)에 복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기에 그가 지불한 제 비용은 육군성에서 지출하기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⁵⁴⁾ 군부와 외부의 입장이 동일하다. 그러나 일본군이 처음 성진에 진출한 것은 1904년 이 아닌 1905년 2월부터로⁵⁵⁾ 무려 1년의 시차가 있어 육군대신 데라우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포로 중 사망자는 23명으로 그중 한국인 1명, 중국인 1명도 포함되었고, 귀환과정에서 일시 잔류자는 일본군 병자 40명과 중국인 7명과 한국인 23명, 일본인 1명이었다.⁵⁶⁾ 수용소에서 사망한 이름 모를 한국인 1명을 제하면 김시함 등 이름만 확인된 9명은 어떤 경로로 체포된 후 어디에 수감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개별 인물 중 군사경찰 혐의로 체포된 김하룡, 통역 김시함과 김성감, 지도제작자 안덕호 등 4명을 제하면 일본군에 적극 협력한 개연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명태상인 김자완과 서상우, 이영준, 김성서 등 4명은 포로 기록에는 없고 한국 측 기록에서만 확인된다. 여하튼 이들 모두는 줄지에 험난한 유라시아(Eurasia) 일주를 한 셈이다.

일본은 1908년 9월 24일과 25일 러시아 당국의 협조로 4구의

54) 防衛省 防衛研究所, 『陸軍省密大日記』 「韓國人金河龍諸費用支出ニ關スル件」 중 「大臣ヨリ外務大臣へ回答案」(1907년 1월 10일);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ノ際露國ニ抑留セラレタル韓國人歸還一件』(육군대신 寺內正毅→외무대신 林董, 1907년 1월 22일).

55) 조재곤, 앞의 논문, 50쪽.

56) 外務省 外交史料館, 『日露戰役ニヨル兩國俘虜員數及階級等調査一件』(페테르부르크 本野 공사→西園寺 외무대신, 1906년 4월 19일).

유해발굴을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거행하고, 유해송환식을 9월 28일 거행한 후 메드베지 수용소에서 사망한 19명의 유해와 함께 총 23구를 독일 함부르크로 반출하여 화장 후 기선 카무마루(加茂丸)로 일본으로 옮긴 바 있다. 이들 중 메드베지 사망자 19명과 모스크바에서 발굴된 2명, 페테르부르크에서 발굴된 2명도 모두 일본인 이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⁵⁷⁾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역사에서 잊혀진 한국인 포로 사망자 1명과 중국인 1명은 누구이고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원고투고일: 2015.10.9, 심사수정일: 2015.11.17,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러일전쟁, 포로, 김하룡, 이익호, 주철준, 메드베지, 함경도, 헤이그 육전조약

57) <표 4> 러시아에서 사망한 ‘일본인’ 포로 명단

번호	이름	계급/직업	사망일	사망지	비고
1	西脇喜一郎	騎兵 軍曹	3월 20일	메드베지	病死
2	山田助次郎	二等 水兵	3월 24일	메드베지	
3	鈴木又三	歩兵 二等卒	4월 14일		
4	徳富和平	金州丸 水夫	7월 6일		
5	佐藤萬	和泉丸 水夫	8월 9일		
6	中井伊之助	歩兵 二等卒	8월 9일		
7	堀場劍吉	歩兵 上等兵	8월 11일		
8	高橋鶴吉	金州丸 水夫	9월 7일		
9	大原愈武	和泉丸 給仕	9월 7일		
10	西田吉松	歩兵 二等卒	9월 12일		
11	大沼榮太郎	工兵 一等卒	9월 20일		
12	武田盛次	歩兵 一等卒	10월 10일		
13	仁井失岩吉	金州丸 軍夫	10월 26일		
14	岩見庄之助	歩兵 一等卒	11월 5일		
15	木花良吉	金州丸 軍夫	11월 21일		
16	東管次	萩浦丸 水夫	12월 5일		
17	後藤泰三	和泉丸 水夫	12월 5일		
18	吉元袈裟吉	和泉丸 点燈方	12월 10일		
19	大原繩吉	歩兵 一等卒	12월 10일		
20	小谷誠之助	歩兵第33聯隊 一等卒			
21	松森政吉	騎兵第14聯隊 上等兵		페테르부르크	
22	石山富吉	和泉丸 給仕			
23	坂上鶴吉	歩兵第22聯隊 一等卒			

* 銜翠居士(村上正路), 『配所遇月』과 藻利佳彦, 앞의 논문, 169~171쪽을 근거로 재작성

** 사망연도는 모두 1905년

<ABSTRACT>

A Study of the Issue on Russo-Japanese War and Korean War Prisoners

Cho Jae-gon

With the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1904-1905), Koreans became the object of the recruitment of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regardless of their will. Also, this event led to an increase of their suffering and sacrifice. During war, there were many war prisoners between both the nations of Russia and Japan, at the battlefields in Manchuria,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East Sea regions. Some of the prisoners were repatriated to the opponent nations. In the process, Many Koreans had been involved in war as well, had been arre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going through the similar course with Japan soldiers did. Later, they were detained in Russian territory for a long term and underwent great suffering.

As for forceful arrests and long-term imprisonment, there are five cases: Kim Ha-ryeong in March 1904, Korean crews having boarded in Hakiuramaru in April 1904, 9 peoples including Kim Shi-ham in April and May 1904, Gilju Provincial Governor Lee Ik-ho in February 1905, and Jongseong Provincial Governor Ju Cheol-jun in April 1905. All of them were arrested by the Russian Troops and transferred to 'Medvezhi' near Gulf of Finland on land. During war, most of Korean prisoners were arrested in Hamgyeong province where the land warfare between Russia-Japan, and Vladivostok-No.2 Japanese fleet naval battle were proceeded. But only in the case of Kim Shi-ham, we could not identify the place

where he arrested and his movement routes

Russia and Japan established each prisoner information bureau during war. Both two countries treated and repatriated prisoners on a mutual-humanitarian level, according to 「Hague Regulation Land War Treaty」 which they signed in 1899, respectively. Nonetheless, such regulations were not fulfilled to Korean prisoners. They underwent national discriminations for treatment and repatriation unlike Japanese soldiers. As a result, the rest of other Koreans except for two provincial governors had to return to Korea through the tough and rough process via Europe, Africa, Indian Ocean, Pacific Ocean and Japan by sea route. The number of deceased of war prisoners were 23. Out of them, there were one Korean and one Chinese. Korean prisoners were repatriated during the turning point of the changing political systems from the Korean Empire Government to the Residency-General. Thus, only the will of the authorities of Japan and Russia triggering war was accepted without consideration of Koreans' will, at all.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prisoners, Kim Ha-ryeong, Lee Ik-ho, Ju Cheol-jun, Medvezhi, Hamgyeong province, Hague Regulation Land War Treaty